

김현승시연구

교양과 이 병 문
조교수

I. 서론

한 사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면 이를 넘어서려고 하는 굳센 의지의 세계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라 믿는다. 그 의지가 대체로 민족을 지키기 위한 경우일 수 있으려니와 더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경우일 수도 있다. 민족과 신앙을 함께 지키기 위한 경우일 때 가장 굳센 의지의 세계와 고독한 세계를 또한 이루리라 믿는다.

한국문학에서도 많은 작가가 숭한 작품을 통해서 민족수호의 그것을 민족문학으로 이루어낸 경우도 있지만, 민족과 신앙을 함께 지키면서 남다른 그것을 문학작품으로 성공한 예도 많다.

우리 배달민족이 지난번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던 때에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신앙 세계로는 천도교·유교·불교·기독교 이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자기세계의 독자적 신앙으로 민족독립운동을 이끌어 왔던 민족고유정신을 버티어 내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인 가운데 기독교 시인으로는, 작고한 분으로 윤 동주·김 현승·박 목월을 들 수 있으며, 생존한 분으로 박 두진·황 금찬을 우선 들 수 있다. 이분들은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삼았으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곧 영험의 시가 되었고 생명의 시가 되었으며 말씀의 시가 되었던 것이다.

한국현대시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많은 문인을 지도하고 배출시킨 분들 가운데 김 현승시인도 있다. 이분은 해방전 우리 민족이 일제하에서 수난기에 있을 때 민족혼을 쓴 바 있지만, 해방후에는 분단조국의 현실을 염려하는 양심과 혼란한 사회현실을 걱정하는 정의로써 참여의 글을 쓰면서, 가정의 신앙과 자신의 신심을 실천하는 기도하는 시와 고독한 시를 쓴 분이다.

김 재홍은 '그는 식민지하의 어둠과 해방 이후의 혼란한 시대를 헤쳐 오면서 고독으로서의 삶의 원상과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데 힘을 기울여 온 이 땅의 대표적 종교시인이자 희귀한 명상시인의 한 사람이었다.'¹⁾고 하였으며, 김 해성은 '건강한 시정신을 구축하여 건강한 지성을 가진 시의 세계를 지향한 시인이다.'²⁾고 한 바 있다.

¹⁾ 김재홍, 한국현대시연구, (서울: 일지사, 1986), p.314.

²⁾ 김해성, 한국현대시인론, (서울: 금강출판사, 1973), p.28.

본고에서는 시인 김 현승의 삶과 함께 그의 시적 변모에 따르는 시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김 현승의 편모

시인 김 현승의 연보에 따르면, 그는 1913년 4월 4일 평양에서 출생하여 1975년 4월 11일 세상을 떠났다.

1919년 4월에 광주숭일학교 초등과에 입학하여 1926년 3월에 졸업하고, 1927년 4월에 평양 숭실중학교에 입학하고 1932년 4월에는 숭실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였는데, 1938년 4월에 신사참배문제로 학교의 교문이 닫히자 기구한 젊음이 시작되었다.

1936년에 모교인 숭일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47년 6월에 그만두고, 다음 해인 1951년 4월에 조선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로 취임하고, 다시 1960년 4월에 숭실대학에 취임하여 타계하던 1975년 4월까지 많은 후학을 배출시켰다. 광주지역사회의 문학도에 대한 사랑도 깊고 하여서 이 지역의 젊은 문학지망생들은 그의 숨결 속에서 매일 살고 있으며 문학에의 긍지와 향수를 누리고 있으리라 믿는다.

시인 김 현승의 시집으로는, 제1 시집 「金顯承詩抄」(1957. 12. 10 관동출판사), 제2시집 「擁護者の 노래」(1963. 6. 30 선명문화사), 제3 시집 「堅固한 孤獨」(1968. 1. 20 관동출판사), 제4 시집 「絶對孤獨」(1970. 11. 1 성문각), 제5 시집 「金顯承全集」(1974. 5. 25 관동출판사), 제6 시집 「마지막 地上에서」(1975. 11. 25 창작과 비평사) 등이 있으며, 1985년 7월 15일에 시인사에서 「金顯承全集」을 발행하였는데, 그 全集1에는 詩를 全集2에는 散文을 全集3에는 韓國現代詩解説과 世界文藝思潮史를 내용으로 뒀으며, 그리고 ‘이 운용의 편저로’ 金顯承評傳·詩選集 「地上에서의 마지막 孤獨」이 文學世界社에서 1984년 3월에 발행되었다.

시인 김 현승의 시적 변모를 말한 분 가운데, 몇 분의 지적에 대해서 말하기로 한다. 조 태일에 따르면,³⁾ 제1기: 1930년대, 제2기: 1945년 해방~1960년초, 제3기: 1960년 이후, 조 재훈에 따르면,⁴⁾ 제1기: 1934년경 문단대위시, 제2기: 1957년 시집 「金顯承詩抄」 간행시, 제3기: 1963년 시집 「옹호자의 노래」 간행시, 제4기: 1968년 시집 「견고한 고독」 1970년 시집 「절대 고독」 간행시, 제5기: 1975년 시집 「마지막 지상에서」 간행시 들로 말하고 있으며, 이 운용⁵⁾에 따르면, 제1기(1934년~1945년): 이 시기의 시풍은 낭만적 감상적이다. 또 자연을 노래하되 그 자연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풍자·기지·유우머로 직조한 모더니즘경향의 시이다. 사

³⁾ 이운용, 지상에서 마지막 고독, (서울: 문학세계사, 1984), p.159 재인용.

⁴⁾ 이운용, 지상에서 마지막 고독, (서울: 문학세계사, 1984), p.159 재인용.

⁵⁾ 이운용, 지상에서 마지막 고독, (서울: 문학세계사, 1984), p.159~160.

상이 활달하고 민족적 분함을 극복, 민족의 회원을 상징한 동시에 동경의 세계를 노래하였으며, 제2기(1946년~1960년대초) : 이 시기의 시풍은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경건한 기도와 신앙심을 노래하고 인간의 내면적인 본질을 추구, 생명과 희망을 노래하였다. 또 사회정의와 민족애의 시를 강렬하게 토로하기도 하였으며, 제3기(1960년대중기~1972년) : 이 시기의 시풍은 고독의 본질을 추구, 신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자 한 시편들이다. 철학적 사상과 관념의 세계를 노래한 형이상학적 시이며, 기법은 사물을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였으며 제4기(1972년~1975년) : 이 시기의 시풍은 고독의 성에서 나와 신에 귀의함으로써 초월의 세계를 지향, 타계하기까지 신앙생활에 열심하였다.

위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제1기(1934년~1945년) : 기독교 사상과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하여서 식민지의 암울을 벗어나려 하였다. 시인 김 현승은 '나는 기독교 신교의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배웠고 현실보다 내세가 더 소중함을 배웠다. 신이 언제나 인간의 행동을 내려다보고 인간은 그 감시 아래서 언제나 신앙과 양심과 도덕을 지켜야 한다고 꾸준한 가정교육을 받았다.'⁶⁾고 하였으며, 제2기(1946년~1971년) : 8.15 해방후의 사회혼란과 6.25의 동족상잔과 3.15의 부정선거 속에서 신앙에 회의가 일기시작하고 생활에 고독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시인 김 현승은 '나의 나이 50대에 이르러 나의 이러한 긍정적인 청교도사상에는 큰 변혁이 일어났다. 간단히 말하여 무조건 부모에게 전승한 신앙에 대하여 나는 50을 넘어서야 회의를 일으키게 되고 점점 부정적인 데로 기울어져 갔다. 나는 인간의 현실에서 살면서도 너무 인간이라는 것을 선형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나의 관심은 점점 천국에서 지상으로, 신에서 인간으로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⁷⁾고 하였으며, 제3기(1972년~1975년) : 그후 끝없이 일어나는 회의 속에서 철저화한 고독 속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투병하던 중에 인간의 한계와 신의 초월을 의심할 수 없어 탕자의 모습으로 신에의 귀의를 고백하였다. 시인 김 현승은 '새해에는 나의 신앙생활을 더욱 힘써, 회개와 자복을 실천으로 더욱 힘써 나아가야 하고 나아가겠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 속에 나의 영혼과 육체의 건강이 더욱 더욱 튼튼하여 지도록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빌고 힘써야 하겠다.'⁸⁾고 하였다.

시인 김 현승을 가을의 시인이니 기도의 시인이니 고독의 시인이라 하는데 김 해성은 '지성적 기도의 시관, 지성적 생명의 시관, 지성적 서정의 시관'⁹⁾으로 나누어 보고 있으며, 이 운용은 더욱 세분화하여서 '기도의 시·초월의 시·고독의 시·정의의 시·조국의 시·생명의 시·희망의 시·불안의 시·극기의 시'¹⁰⁾로 나누고 있는데, 시인 김 현승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⁶⁾ 김현승, "나의 문학백서", 김현승전집2, (서울: 시인사, 1985), p.271.

⁷⁾ 김현승, "나의 문학백서", 김현승전집2, (서울: 시인사, 1985), p.274.

⁸⁾ 김현승, "하나님께 감사를 보내며", 김현승전집2, (서울: 시인사, 1985), p.396.

⁹⁾ 김해성, 전게서, p.287.

¹⁰⁾ 이운용, 전게서, pp.180~251.

있다.¹¹⁾ ‘내가 지금까지 쓴 작품을 그 내용면에서 분류하여 보면 대략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이 있다고 하겠다. ① 불행이나 인고나 우울의 진실을 소재로 한 것(〈눈물〉 〈푸라타나스〉 〈가로수〉 등) ② 사회정의의 소재로 한 것(〈슬픈 아버지〉 〈호소〉 〈갈구자〉 등) ③ 이것은 일정한 사상이라면 사상일 수 있겠는데 인생의 고독을 소재로 한 것(〈내 마음은 마른 나무가지〉 〈건강체〉 〈독신자〉 등) ④ 사물의 본질자체를 소재로 한 것(〈보석〉 〈술품〉 등) 그러나 이것들 역시 미리 정립된 사상을 바탕으로 산출된 확고부동한 가치체계는 아니다. 산출된 것을 분류하여 보니까 이렇게 되었더라는 것뿐이다’라고.

시인 김 현승은 아호를 ‘茶兄’이라 쓰고 있었는데, ‘茶兄’이란 아호를 누구나 함부로 불러보기가 너무 조심스럽기까지 않을까 한다. ‘茶兄’ ‘茶兄’하는 것이 솔직히 송구스럽다는 것이요 ‘차는 인생을 깨우며 인생을 곰곰이 생각하며 마시게 된다’고 말한 본인이야 회갑을 넘으면서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그리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리라 믿는다.

빈 들의
많은 머리와
斷食의
깨끗한 속으로

가을이 외롭지 않게
차를 마신다.

마른 잎과 같은
兄에게서
우러나는

아무도 모를
높은 향기를
두고두고
나만이 호올로 마신다.

읽고 또 읽어 보면 ‘단식·가을·차·향기·비다·맑다·깨끗하다·마르다·호올로’- 이 모든 시어들이 시인 김 현승의 인품과 사상과 신앙과 시를 떠오르게 만들고 있다. 가을이 외롭지 않게 차를 마시는 ‘茶兄’에게서는 과연 ‘높은 향기’가 피어나듯 하다.

¹¹⁾ 김현승, “나는 시를 이렇게 쓴다”, 전계서, p.291.

2. 김 현승의 문단등단

시인 김 현승은 자신과 문학과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²⁾

중학에 다닐 때 내가 제일 좋아한 부면이 스포오츠이고 그 다음이 문학이었다. 전문학교 시절에는 나는 일백미터 돌주건도, 투창, 투원반에 만능선수이었다. 축구도 고향인 광주에 돌아오면 올광주팀의 예비같이 날쌌 인백이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문학을 좋아하였다. 좋아 할 뿐 아니라, 나이가 들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내게는 스포오츠와 문학의 위치가 문학-스포츠의 위치로 그 비중이 바뀌어져 갔다. 내가 송실전문 1학년 때-1933년의 겨울방학이었다. 나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스팀과 베드가 있는 기숙사에 남아 시작에 열중하였다.

하면서, 또 시를 쓰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³⁾

나는 송실전문 2, 3학년에 다닐 때 하나의 시인으로서 시를 썼다. 그때 나는 왜 시를 썼는가? 그때는 문단에 나오고 싶어서 시를 썼다. 다시 말하면 그때는 시인이 되어 시를 발표할 수 있기에, 그 필요한 시인이 되려고 시를 썼다. 그 다음에는 시인이 되었으므로 시를 마음대로 써서 발표하는 재미로 시를 썼다. 그러므로 이때까지는 시단에 받을 붙이기 위하여 시를 썼던 것이지 시 자체에 대하여 어떤 지각을 가지고 시를 쓰지는 못하였다.

하였으며, 「고요한 면을 지닌 '눈물'」-나의 처녀작과 대표작-에서 '처녀작을 문자 그대로 맨 처음 지상을 통하여 세상에 발표한 작품이라고 한다면, 나의 처녀작은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은」과 「어린 새벽은 우리를 찾아온다 합니다」의 두 편의 시다」고 하였다.

아침 해의 축복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크고 작은 유리창들이
순간의 영광답게 최후의 찬란답게 빛이 어리었음은
저기 저 찬 하늘과 추운 지평선 위에 붉은 해가 피를 뿌리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그들의 황홀한 심사가 멀리 바라보이는
광활한 하늘과 大地와 더불어 황혼의 點想을 모으는 곳에서
해는 날마다 그의 마지막 정열만을 세상에 붓는다 합니다.
여보세요, 저렇게 붉은 情熱만은 아마 식을 날이 없겠지요.
아니 우랄산 골짜기에 쏟아뜨린 젊은 사내들의 피를 모으면 저만할까?

그렇지요, 東方으로 귀양간 젊은이들의 情熱의 회합이 있는 날아! 저 하늘을 바라보세요.
황금창을 단 검은 기차가
어둡고 두려운 밤을 피하여 黎明의 나라로 화살같이 달아납니다.
그늘진 산을 넘어와 광야의 시인-검은 까마귀가 城邑을 지나간 후

¹²⁾ 김현승, “시인으로서의 ‘나’에 대하여”, 전계서, p.282.

¹³⁾ 김현승, “쓴다는 것의 의미”, 전계서, p.214.

어두움이 대지에 스며들기 전에
 열차는 安全地帶의 회황한 메트로 폴리스를 향하여
 黑暗이 절박한 北部의 雪原을 탈출한다 하였읍니다.
 그러면 여보! 이 날 저녁에도 또한 밤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막한 몇 가지 일을 남기고 해는 졌읍니다그러!
 참새는 소박한 깃을 찾고,
 산 속의 토끼는 털을 뽑아 등지에 찬바람을 막고 있겠지요.
 어찌 灰色의 포플러인들 五月의 茂盛을 회상하지 않겠읍니까?
 불려가는 바람과 내려오는 서리에 한평생 늙어버린 전신주가
 더욱 가늘고 뻘죽해 질 때입니다.
 저녁 배달부가 돌아다닐 때입니다.
 여보세요,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허다한 사람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프레젠티하는 우편물입니까?

해를 쫓아버린 검은 狂風이 눈보라를 날리며 개선행진을 하고 있습니다그러!
 불빛 어린 창구마다 구슬피 흘러 나오는 悲戀의 頌歌를 듣습니까?
 쓸쓸한 저녁이 이를 때 이 땅의 居民이 부르는 遺傳의 노래입니다.
 지금은 먼 이야기, 여기는 東方
 그러나 우렁차고 빛나던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던 날
 오직 한마디의 悲歌를 이 땅에 남기고 先人の 발자취가
 어두움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다 합니다.
 그리하여 눈물과 한숨, 또한 내어버린 웃음 위에
 漂浪의 역사는 흐르는 세월과 함께 쓰여져 왔다 합니다.

그러면 여보, 이러한 이야기를 가진 당신들!
 쓸쓸한 저녁이 올 때 창 밖에 안타까운 집시의 노래를 放送하기엔
 -당신들의 情熱은 너무도 크지 않습니까?
 漂浪의 역사를 그대로 흘러 보내기엔
 -당신들의 마음은 너무도 悲憤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오랫동안 차고 어두운 이 땅
 울분의 덩어리가 수천 수백 강렬히 불타고 있었읍니다그러!
 마침내 悲戀의 감정을 발끝까지 찍어 버리고
 금붕어 같은 삶의 기나긴 페이지 위에 검은 먹칠을 하고
 하고서, 강하고 튼튼한 역사를 또다시 쌓아 올리고
 캄캄하던 東方山 마루에 빛나는 해를 불쑥 올리려고
 밤의 險路를 천리나 만리를 달려나갈 젊은 당신들-
 情緒를 가진 이, 일만 사람이 쓸쓸하다는 겨울 저녁이 올 때
 구슬픈 저녁을 더더 장식하는 가냘픈 旋律 끝에 매어 달린
 曲調와

당신의 작은 것을 찾는 가없는 마음일랑 작은 산새에게 내어주고
 綠色 등잔 아래 붉은 會話를 그렇게 할 이웃에게 맡기고
 여보! 당신들은 맹렬한 바람이 부는 추운 거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름찬 당신들의 일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은」 전문

1934년 그 무렵의 소감을 시인 김 현승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⁴⁾

이리하여 칭찬한 시 두 편도 양교수님께서 친히 추천서를 쓰셔서 「동아일보」 문화부장인 서 항석씨에게 보내 주셨다. 이렇게 되어 5~6일 뒤에는 「동아일보」 문화란에, 문단에서는 그때까지 아무도 모르던 사람의 시가—그것도 70여행이나 되는 두 편의 장시가 연이어 대문 딱만 하게 게재되었다. 그때 그 아침의 나의 기쁨—참새의 가슴과 같이 할딱이며 뛰던 나의 경험은 시를 쓰다가 처음으로 문단에 진출하여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백천 번 들려 주어도 모를 것이다.

「金顯承全集」1 시편의 차례를 훑어 보면 그의 시작변모를 말해주듯, 시의 제목 가운데 「황혼」「밤」「까마귀」「떠남」「묵상」「아침」「새벽」「새벽교실」 등이 많은데, 밝음과 어둠이, 희망과 절망이 짙게 깔려 있다. 이것은 일제치하의 민족적 분위기와 개인적 정서가 엮여 있다고 본다.

그 무렵 시인 김 현승은 조국에게 독립이 민족에게 평화가 온다는 것을 신앙으로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 시인은 그의 조국과 민족과 신앙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너를 보고 내일을 믿는다.
 더 힘있게 내일을 사랑한다.
 그리하여 힘있게 오늘과 싸운다.

「새벽」중에서

아우야 얼마나 훌륭한 아침이나
 우리들의 꿈보다는 더 아름다운 아침이 아니냐
 어서 바다를 향하여 기운찬 돌을 던져라
 우리들이 저 푸른 해안으로 뛰어갈 아침이다.

「아침」중에서

시인 김 현승은 분명하게 ‘내일을 믿는다·내일을 사랑한다·오늘과 싸운다’ 또는 ‘훌륭한 아침·아름다운 아침·뛰어갈 아침’이라고 하면서, ‘오늘’과 ‘내일’, ‘싸운다’와 ‘믿는다·사랑한

¹⁴⁾ 김현승, “굽이쳐 가는 물굽이 같이”, 전계서, p.254.

다', 그리고 '아침'을 '홀륭하다' '아름답다' '뛰어가다'로 잇고 있으니, 비록 어둡고 희망을 빼앗긴 현실이지만 체념과 회의에 묻히지 아니하고, 다소 민족적 감상과 비애를 읊은 시인은 그의 신앙의 긍정만큼 조국애와 민족애에 대해서도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김 현승의 시와 가을

시인 김 현승은 기독교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교인으로 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영감이 넘치는 주옥같은 시를 썼다. 그는 청교도적인 청교도주의에서 너무나 깐깐하고 결백하게 살았다. 시의 세계도 문명적이고 윤리적이며 서양적이어서 누구보다 지적이고 신앙적이며 의지적이었다. 해방전 암흑기때 잠깐 붓을 놓았던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⁵⁾

직장을 구하여 평안북도 용강군에 있는 한 산골의 사립학교의 교사로 친구의 소개에 의하여 부임하여 갔다. (중략) 그뒤 황해도의 홍수원금융조합과 전라남도의 화순금융조합에 2년간 근무하여 보았으나 시와 숫자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을 실감하고 뛰쳐 나오고 말았다. (중략) 나는 다행히도 어느 피복회사에 일자리를 얻어 한 동안 수입도 꽤찮게 되었다. 그러나 술을 못한다는 이유로 상무이사인 일인은 나를 몹시 미워하였다. 이와 같이 생존을 위하여 전전긍긍하는 동안 나는 시와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그후 우리에게 해방이 오자 다시 붓을 들었던 그의 모습을 「자화상」을 통해서 본다.

내 목이 가늘어 懷疑에 기울기 좋고
血液은 鐵分이 셋에 눈물이 일곱이기
咆哮보담 술을 마시는 나이팅계일……

마흔이 넘은 그보다도
뺨이 쪼들어
戀愛엔 아주 失望이고,

눈이 커서 눈이 서러워
모질고 사특하진 않으나,
신앙과 이웃들에 자못 길들기 어려운 나
사랑이고 원수고 몰아쳐 허허 웃어버리는
비만한 모가지일 수 없는 나

내가 죽는 날
단테의 煉獄에선 어느 扉門이 열리려나?

「자화상」전문

¹⁵⁾ 김현승, “굽이쳐 가는 물굽이 같이”, 전계서, p.261.

이 시에서는 그의 시세계가 처음의 외계적인 자연세계와의 조화로부터 벗어나 시의 정서나 영감이 인간세계로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변적인 세계로부터 자아내면적인 세계로 전환이 있었다는 것이다. ‘회의’니 ‘눈물’이니 ‘실망’이니 하면서 ‘신앙과 이웃에게 길들기 어려운 나’ ‘비만한 모가지일 수 없는 나’라고 자기의 변신한 모습을 보였으며, 그만큼 신의 세계에로 나름대로 출발하였으며 짧은 날로부터 마흔의 불혹으로 완숙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의 인간적 완숙은 ‘눈이 커서 눈이 서러워 모질고 사특하진 않으나’하면서 ‘사랑’과 ‘원수’를 싱겁고 단순하게 넘기려는 경솔을 저지르는 비만한 모가지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에는 고향과 가을을 벌써 느끼고 있었다고 본다. 시인 김 현승은 ‘가을’을 좋아하고 사랑한 시인이다. 그가 ‘가을’을 시제로 쓴 작품으로는,

- 가을이 오는 시간
- 가을의 立像
- 가을의 祈禱
- 가을의 詩
- 가을의 鋪道
- 가을은 눈의 계절
- 가을의 향기
- 가을의 素描
- 가을의 벡타이
- 가을비
- 가을이 오는 달
- 가을 저녁
- 가을의 碑銘
- 가을의 입구에서
- 가을이 아직은 오지 않지만
- 가을에 월남에서 온 편지
- 가을치마
- 가을
- 晚秋의 詩

웬만하면 ‘가을시집’도 내볼 만하다. 가을을 남달리 좋아하던 시인 김 현승은 「가을에 생각 나는 시들」¹⁶⁾에서 포울베르레에스의 「낙엽」, 예이츠의 「낙엽」, 아폴리네르의 「비는 내린다」, 보들레에르의 「잃어버린 여인에게」, 트럼블 스틱크의 「추억」, 프란시스 잠의 「가을이 오면」, 릴케의 「가을날」 등을 좋아한다고 들고 있다.

가을은 오곡 백과가 풍요한 계절이요 단산홍록이 불타는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이 가을은

¹⁶⁾ 김현승, “굽이쳐 가는 물굽이 같이”, 전거서, pp.435~442.

쌀쌀한 북서한풍이 찾아오는 계절이요 달이 차갑게 느껴지는 계절이며 또한 땀구는 낙엽과 벌거벗은 마른 나무가지가 쓸쓸한 계절일 수밖에 없는 계절이다.

어딘가 자기부족을 느끼게 하고 자기고독을 느끼게 하며 자기허무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라면 가을일 것이다. 인간이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고독과 자기의 허무를 느낄수록 자기의 세계만을 고집하거나 신의 세계에 매달릴 것이다. 시인 김 현승은 한때 자기에게만 성실하고 자기에게만 충실한 적도 있어지마는 그의 부모님의 신앙과 자신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의 세계에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신앙인임에 틀림없다.

시인 김 현승은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⁷⁾

이 시기에나 나는 내 평생의 버릇대로 가을에 관한 시를 많이 썼는데 그 중 지금까지도 인구에 회자되는 시는 「가을의 기도」이다. 이러한 시에도 나의 기독교적 기질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 있다. '다소곳한 겸허·쓸쓸한 감상·'반성의 기도' 이런 것들은 인간으로서의 나의 본질이었다.

시인 김 현승의 신앙적 뿌리를 엿볼 수 있으며, 그가 가을 사랑함을 직접 들어 볼 수 있다. 과연 그는 진실한 신앙으로 기도하는 시인이었고 기도하듯 진실한 시를 쓴 시인이었다. 시인 김 현승은 '나도 가을에는 릴케의 시와 같이 집을 떠난 먼 곳에서 호올로 방황하고 싶은 충동을 종종 경험한다.'¹⁸⁾하면서, R. M. 릴케를 좋아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⁹⁾

나는 또 많이는 읽지 않았으나 릴케도 좋아한다. 릴케에게서 취할 점은 진실성이다. 왜 그런지 그는 어느 시인보다 추구의 진실성을 풍겨 주고 있다. 시의 궁극이 진실에 있다면 릴케야말로 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시인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그의 「가을의 기도」를 소개한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母國語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¹⁷⁾ 김현승, "굽이쳐 가는 물굽이 같이", 전계서, p.263.

¹⁸⁾ 김현승, "커피를 끓이면서", 전계서, p.364.

¹⁹⁾ 김현승, "시였던 예수의 언행", 전계서, p.297.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올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百畝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가을의 기도」전문

이 시는 숭실대학 교정에 있는 시인 김 현승의 시비에 새겨져 있어, 많은 젊은 후배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올로 있게 하소서'에서 보듯이 시인 김 현승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고독한 사람이 되고자' 바라는 시인이었다. 마치 신앙인의 대명사와 같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으로서의 기도하는 자세와 사랑하는 자세와 고독한 자세가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다.

김 해성은 '청백하고 발랄한 지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하면서 「기도」와 「사랑」과 「고독」의 삼위일체가 조용한 가을에 인간과 자연에 동화되고 있음을 감득할 수 있다.²⁰⁾ 하였으며, 그리고, 김 재홍은 <호올로>에서의 소망은 바로 인간본질로서의 고독으로의 다가감이며, 아울러 자유에로의 향성이 아닐 수 없다.²¹⁾ 하였으며, 최 규창은 '가을의 겸허와 쓸쓸함으로 기도하던 김 현승, 한국현대시에 있어서 기독교사상을 바탕으로 주지적인 시인으로서의 큰 봉우리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가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려는 인간의 참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²²⁾ 하였다. 한편, 박 철석은 '〈낙엽〉 〈열매〉 〈마른 나무가지〉는 고독의 등가물이다.' 하면서, '특히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시간을 가꾸게 하소서〉란 대목은 성숙과 완성을 바라는 릴케의 〈가을날〉을 방불케 한다.'²³⁾ 하였다.

'까마귀'를 시어로 많이 썼기에 아마 시인 김 현승은 '까마귀 시인'인가 한다. 그는 「까마귀」란 시에서 '나의 시집에도 까마귀 백 개만 시재로 넣으려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까마귀'를 '영혼의 새'이며 '황혼의 새'이며 '名作家'이며 '감상시인'이라고 스스로 쓰고 있다. 이 '까마귀'가 보이는 시로는 대충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은」 「어린 새벽은 우리를 찾아온다 합니다」 「너와 나」 「까마귀」 「바람」 「내 마음은 마른 나무가지」 「가을의 기도」 「가을의 시」 「박명의 남은 시간 속에서」 「一九六〇년의 연가」 「겨울 까마귀」 「가을이 오는 달」 「크리

²⁰⁾ 김해성, 전계서, p.291.

²¹⁾ 김재홍, 전계서, p.297.

²²⁾ 최규창, 한국기독교시인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4), pp.26~27.

²³⁾ 박철석, 한국현대시인론, (서울: 학문사, 1983), p.197.

스마스와 우리집」 「산까마귀 울음소리」 「재」 「마지막 地上에서」…… 이와 같다.

윗 시에 보이는 ‘가을·낙엽·열매·호올로·백합·마른 나무가지·까마귀’ 들은 그의 고향인 남쪽 광주 양림동시절의 동산과도 상관되리라고 본다. 특히 ‘까마귀’에 대하여서 시인 김현승은 ‘내가 여태 쓴 시 가운데에는 까마귀의 소재가 많은데, 이 까마귀는 나의 인생관적 사상적 소재이기보다는 내 고향의 특유한 계절적인 소재라고 함이 더욱 옳을 것이다.’²⁴⁾ 하면서, 다시 ‘나의 고향 남쪽 겨울에 그렇게도 많은 까마귀들은 어딘가 영혼과 슬픔과 괴로움에 속하는 새들이나 것 같다.’²⁵⁾ 하였다.

4. 김현승의 시와 고독

시인 김현승의 시에는 ‘가을’만큼 많이 그의 작품에 보이는 시제를 ‘고독’으로 쓰고 있다. 시인 김현승은 ‘가을’도 좋아하였고, ‘기도’도 좋아하였으며, 이 ‘고독’도 매우 좋아하였다. 「군중속의 고독」 「견고한 고독」 「절대고독」 「인간은 고독하다」 등의 제목부터가 독자로 하여금 고독에 젖어 들게 하고 있으며, 「고독한 싸움」 「고독한 이유」 「고독의 끝」 등의 제목은 독자로 하여금 고독의 이유를 생각하게 하고 있다.

‘고독’을 시제로 한 예는,

- 고독
- 고독의 끝
- 고독의 純金
- 고독의 풍속
- 고독의 싸움
- 고독한 이유
- 견고한 고독
- 군중속의 고독
- 절대고독
- 인간은 고독하다.

시인 김현승이 ‘고독’을 익히고 읊은 술회를 적는다.²⁶⁾

1960년대 후반-고향인 광주에서 서울로 옮기고 나서 5~6년을 지내면서 나는 내 시의 변모를 의도하던 끝에 ‘고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중략) 또한 나의 고독은 키엘케고르같이 구원을 신에게 버리는 두 팔-마른 나무가지와 같은 고독도 아니다. 아직까지는 나의 시는 단지 고독을 위한 고독, 절망을 위한 절망이고자 한다.

²⁴⁾ 김현승, “초가을”, 전계서, p.413.

²⁵⁾ 김현승, “겨울방학”, 전계서, p.420.

²⁶⁾ 김현승, “굽이쳐 가는 물굽이 같이”, 전계서, p.264.

그리고, 그는 '나의 고독은 구원에 이르는 고독이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리는, 구원을 포기한 고독이다. 수단으로서의 고독이 아니라 나의 고독은 순수한 고독 자체일 뿐이다.'²⁷⁾ 하면서, 「고독의 끝」의 맨 마지막 연에서 '내가 할 일은/ 거기서 영혼의 옷마저 벗어 버린다.'고 하였으며, 「절대고독」의 맨 마지막 연에서는 '나는 내게서 끝나는/ 아름다운 영원을/ 내 주름잡힌 손으로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며/ 더 나아갈 수도 없는 나의 손 끝에서/ 드디어 입을 다문다- 나의 詩와 함께'라고 하였으며, 또한 「인간은 고독하다」에서는 '신앙을 가리켜 그러나 고독에 나리는 축복이라면/ 깊은 신앙은 우리를 더욱 고독으로 이끌 뿐,/ 내사상의 뜨거운 피로도 너의 전체를 녹일 수는 없구나!'고 하였던 것이다.

거기서
나는
옷을 벗는다.

모든 황혼이 다시는
나를 물들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끝나면서
나의 처음까지도 알게 된다.

神은 무한히 넘치어
내 작은 눈에는 들일 수 없고,
나는 너무 잘라서
神의 눈엔 끝내 보이지 않았다.

무덤에 잠깐 들렀다가,

내게 숨막혀
바람도 따르지 않는
곳으로 떠나면서 떠나면서,

내가 할 일은
거기서 영혼의 옷마저 벗어 버린다.

「고독의 끝」 전문

고독은 정직하다.
고독은 神을 만들지 않고,

²⁷⁾ 김현승, "나의 문학백서", 전계서, pp.271~280.

고독은 무한의 누룩으로
부풀지 않는다.

고독은 자유다.
고독은 군중 속에 갇히지 않고,
고독은 군중의 술을 마시지도 않는다.

고독은 마침내 目的이다.
고독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독은 目的 밖의 目的이다.
目的 위의 目的이다.

「고독한 이유」 전문

시인 김 현승이 말한 ‘고독의 끝’은 과연 어딘가. 「고독의 끝」 네째 연에서 ‘神은 무한히 넘치어 / 내 작은 눈에는 들일 수 없고, / 나는 너무 잘아서 / 神의 눈엔 끝내 보이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끝 연에서는 ‘내가 할 인은 / 거기서 영혼의 옷마저 벗어 버린다’고 하며 기독교 교인의 신앙인 영생의 사상·부활의 신앙까지도 철저히 무너뜨린, 이른바 철저한 고독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고독한 이유」에서 ‘고독은 정적하다’ ‘고독은 자유다’ ‘고독은 마침내 目的이다’는 자기고독을 세웠다.

시인 김 현승은 고독을 ‘정적’과 ‘자유’와 ‘목적’이라 하였는데, 이 고독은 인간의 완속과 신의 숭배를 기원한 기독교 교인으로서의 신앙이고 예배이며 기도이다. 김 현승은 고독은 절망적이지 아니하고 마른 나무가지와 같은 고독도 아니며, 고독을 위한 고독이고 절망을 위한 고독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기도이며 다윗의 시이다. 신앙과 순수와 양심과, 정적과 자유와 사랑을 좋아하고 지키던 그의 고독은 군중 속에 갇히지 아니하고 군중의 술을 마시지도 아니한다 하면서, 신으로부터의 은총과 신으로부터의 교제를 사실상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의 고독은 ‘빈틈없이 깐깐하고 비타협적이고 고고하다.’²⁸⁾고 하였으며, 그의 고독은 ‘아무런 구원도 바랄 수 없는 바라지도 않는 고독이기에 고독을 철저히 지키려 했던 것이다.’²⁹⁾고 하였다.

시인 김 현승이 쓴 ‘고독’을 살폈는데, 과연, ‘김 현승의 시적 사유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고독이다.’³⁰⁾라고 하겠다.

5. 김 현승의 시와 변모

시인 김 현승이 말한 바에 의하면,³¹⁾

²⁸⁾ 박두진, 한국현대시론, (서울: 일조각, 1980), p.306.

²⁹⁾ 최규창, 전계서, p.31.

³⁰⁾ 박철석, 전계서, p.190.

³¹⁾ 김현승, “나의 문학백서”, 전계서, p.276.

시 「제목」을 계기로 하여 나의 시세계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중기까지 유지하여 오던 단순한 서정의 세계를 떠나, 신과 신앙에 대한 변혁을 내용으로 한 관념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하였으며, 권 오만은 '시 「제목」은 시인의 변모된 세계관을 나타내는 이정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³²⁾하였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시인 김 현승은 외부의 자연세계와의 조화로 출발하였으나, 나중에는 내부의 정신세계와의 조화를 의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정짓기 어려운 심정을 다음 시에서 읽을 수 있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나아가 화목할 것인가
쫓김을 당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네계로 흐르는가
너를 거슬러 내계로 오르는가.

두 손에 고삐를 잡을 것인가
품 안에 안길 것인가.

허물을 지고 갈 것인가
허물을 물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눈이 밝을 것인가
마음이 착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야 할 것인가
살고 볼 것인가.

필 것인가
빛을 뿌릴 것인가.

간직할 것인가

³²⁾ 권오만, “김현승의 성·속의 갈등”, 한국현대시사연구, (서울: 일지사), p.405.

바람을 일으킬 것인가.

하나인가

그 중의 하나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뛰어 들 것인가

뛰어 넘을 것인가.

과도가 될 것인가

가라앉아 眞珠의 눈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끝장을 볼 것인가

죽을 때 죽을 것인가.

무덤에 들 것인가

무덤 밖에서 뒹굴 것인가.

「제목」 전문

‘어떻게 할 것인가’고 다섯 번씩이나 묻고 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참으로 어려운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스물 여덟 번씩이나 질문하고 있다. 그 가운데 어느 하나만에 답한다 하여도 진실로 진실로 어렵기만 하는 생각이다. 「고독한 이유」에서는 그래도 정확하게 대답을 보여 주었지만, 이 「제목」에서는 그저 ‘어떻게 할 것인가’고 거듭 묻고만 있다.

이 「제목」에서는 변화를 가지느냐, 변화를 가지지 아니하느냐고 하는 기로점에 서 있다. ‘뛰어 들 것인가’ ‘끝장을 볼 것인가’ ‘무덤에 들 것인가’, 아니면 ‘뛰어 넘을 것인가’ ‘죽을 때 죽을 것인가’ ‘무덤 밖에서 뒹굴 것인가’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화목할 것인가’ ‘불목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가정의 신앙과 자신의 신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뛰어 들고, 끝장을 보고, 무덤에 드는 경우와 뛰어 넘고, 죽을 때 죽고, 무덤 밖에서 뒹구는 경우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밝은 세계와 어둔 세계, 선의 세계와 악의 세계 들로 양분될 뿐이며 ‘자율과 타율, 능동과 피동’, 수락과 거부, 순응과 저항, 대결과 회피, 화해와 불화, 생존과 죽음³³⁾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시인 김 현승은 그의 「종교와 문학」에서 ‘목사인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정교육에 전적으로 동조하시는 어머니는 3남 2녀나 되는 자식들을 신앙적으로 기르고 가르치시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엄한 종교교육으로 우리 형제들에게 임하셨다.’고 회상하고 있지만, ‘가을’과 ‘고

³³⁾ 김재홍, 전계서, p.309.

독'과 '눈물' 앞에서 한 인간으로 고독해 하다가 시의 변모를 거치면서 신앙의 본향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6. 김 현승의 시와 신앙

시인 김 현승의 시는 그의 끈고 바른 청교도주의적인 신앙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깊이 와서 공감되면서도 함부로 범할 수 없는 영혼의 속삭임인 줄 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외경의 사상과 경건한 신심에서 믿음의 시·찬양의 시·기도의 시를 썼다.

그에게는 주옥과 같은 「가을의 기도」 「눈물」도 있지만, 세속에 물든 속물을 멀리한, 한국의 교양인이고 지성인인 그이러서 청정무구한 시와 간곡한 기도으로써 다윗의 시와 솔로몬의 기도에 버금가는 반열에 들었던 것이다. 시인 김 현승의 신심을 듣는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생명과 믿음과 자각을 내게 주시고 나의 실낱 같은 생명을 지켜 주신다. 이 실낱 같은 나의 생명을 주님이 거두시는 날까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그때까지 믿음의 시를 쓰다가 고요히 눈을 감고 싶다. 이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의 나에게는 있을 수도 바랄 수도 없다.³⁴⁾

나는 목사의 아들인 시인이면서도 한번도 우리 사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신앙중심의 시를 발표한 일이 없다. 기독교신문이나 기독교잡지에서 원고청탁이 오면 신앙시를 써서 보냈으나 일간신문이나 잡지에는 지상중심의 시를 써서 보내고도 예사로 알아왔다. 나는 이 사실을 참회하였다.³⁵⁾

시인 김 현승은 본래 신앙생활 위에서, 너무 진실하게 너무 철저하게 깊은 신심과 함께 한 문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시는 신앙시가 아닌 것이 없었다 하여도 지나친 속단이라고 못할 것이다. 그만큼 그는 신앙시를 많이 썼던 분이다.

- 가을의 기도
- 감사하는 마음
- 나무
- 눈물
- 무기
- 부활절
- 사랑의 동전 한 푼
- 울러라 탄일종
- 춘예배당
- 크리스마스의 모성애

³⁴⁾ 김현승, “종교와 문학”, 전계서, p.305.

³⁵⁾ 김현승, “하나님께 감사를 보내며”, 전계서, p.395.

시작품마다가 신심에 넘치고 있어서, 어느것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다. 이 가운데서 특히 「가을의 기도」와 「눈물」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시인 김 현승은 ‘나의 작품 중에서 그런대로 나의 마음에 드는 것은 「눈물」인 것 같다’하면서, ‘진지하고 열렬한 슬픔을 통하여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그 시정신과 그저 고스란히 인고의 걸음을 소가 받은 갈듯이 걸어가야 할 것 같다.’³⁶⁾고 하였다.

더러는
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흙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제,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눈물」 전문

이 시는 광주 무등산 산자락에 있는 그의 시비에 새겨져 있다. 시인 김 현승은 이 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³⁷⁾ “그리하여 나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으로, 외계로부터 내면의 세계로 관심을 돌렸다. ‘이런 시기에 얻은 작품으로 나에게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눈물」이 있다.’” 하면서,

이 시의 기저에도 기독교 정신이 깔려 있다. 이 시는 내가 그렇게도 아끼던 나의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 애통해 하던 중 어느날 문득 얻어진 시다. 나는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고 하였었고, 그러한 심정으로 이 시를 썼었다.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이 지상에 오직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 앞에 흘리는 눈물뿐일 것이다.’라는 것이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는 눈물을 좋아하는 나의 타고난 기질에도 잘 맞는다.

이 시의 시작동기는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는데 있고, 이 시의 정신은 '기독교정신'에 있으며, 이 시의 주제는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 앞에 흘리는 '눈물'뿐이라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시의 동기와 정신과 주제는 곧 '믿음과 기독교와 눈물'로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웃음'은 변하기 쉬운 것이라 하고 '눈물'은 생명의 본질이라 하면서, 썩지도 않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눈물'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금가지도 않는 채 나의 전체이며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이라 하였다. '눈물'은 청정무구하고 완전무결하며 지고지순함으로써의 생명의 본질이며 신앙의 진수일 것이다. 끝연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에서는 아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아예 단 위에 바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믿음의 '눈물'이고 사랑의 '눈물'과 같이 값지고 고귀하였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랑으로 승화시켰을 때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김 재홍은 「눈물」은 비극적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긍정함으로서의 보다 큰 삶의 긍정 또는 영원에 이르는 길을 찾고자 한 정화의 시, 극복의 시, 갈망의 시로 볼 수 있다.⁸⁾고 하였다.

깊은 산골에 흐르는
맑은 물소리와 함께
나와 나의 벗들의 마음은
가난합니다
주여 여기 함께 하소서.

밀 방아가 끝나는
달 뜨는 수요일 밤
肉松으로 다듬은 당신의 壇 앞에
기름불을 밝히나이다
주여 여기 임하소서.

여기 산 기슭에
잔디는 푸르고
새소리 아름답도소이다.
주여 당신의 장막을 예다 퍼리어까
나사렛의 주여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옵소서.

「村禮拜堂」 전문

시인 김 현승은 본래 광주 양림동 푸른 숲 자연 동산을 가깝게 살았던 향수 때문인지, 그 보다는 그의 순수하고 아름답고 청교도적인 신앙 때문인지, 고도의 물질문명을 자랑하듯 뽐췄

솟은 종탑이 있는 도회의 예배당이 아니고 시골 예배당을 쓰고 있다. 깊은 산골, 맑은 물소리, 푸른 잔디, 아름다운 새소리로 감싸인 예배당에는,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이들이 수요일밤에는 단 앞에 기름불을 밝히며 거기에 장막을 펴리이까라고 예배드리고 있다. 그리고, 주여, 나사렛의 주여, 여기 함께 하소서, 임하소서, 계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며 기도드리고 있다.

기독교 경전 중 신약전서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7장 29절까지를 '왕의 설교'라고 하는데, 다시 5장 1절로부터 16절까지를 '천국시민의 자격'이라 하고, 또 다시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15절에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라 하였다.

촌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이다. 때문에 그들은 천국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모실 주인이 되어서 천국시민의 자격을 얻은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시인 김 현승의 소망은 곧 천국시민의 자격을 얻는 신심이다. '산까마귀 / 긴 울음을 남기고 / 해진 지평선을 넘어간다'던 시인 김 현승의 모습이다.

Ⅲ. 결 론

본고에서는 시인 김 현승의 삶과 시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시를 써 놓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시를 써 갔던 이 시인에게는 남다른 시들이 많이 있다.

처녀작을 발표하던 무렵에는, 민족주의적センチ멘탈리즘이 짙으면서 자연세계에 대한 동경울 쓴 감상시가 있었는가 하면, 그의 신앙생활과 관계가 깊은 가을의 시와 고독의 시도 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고독한 사람이었으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인생의 본질에 대한 문제로부터 신에의 완전한 쿠키에 대한 문제에까지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가정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고독과 종교적인 회의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가장 절실한 종교시를 썼다. 그리하여 그는 한국에서 최초로 기독교시인으로 존경받고 있으며 그의 시도 사랑받고 있다.

진실한 생활 가운데서 신심을 시로 썼을 때, 과연 그는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호을로 있게 하소서'라고 할 수 있었으며, '주여, 여기 함께 하소서, 나사렛의 주여,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었다.

그의 시는 생활에서 유리된 풍류시가 아니고, 생활에 밀착된 종교시이었다. 그동안 우리 문학에는 뚜렷한 종교문학도 없었고 뚜렷한 종교시인도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시인 김 현승이 종교문학을 개척한 작가로 나타난 것이다. 펍 자랑스러운 일이다.

참 고 문 헌

1. 권오만, “김현승의 성·속의 갈등”, 한국현대시사연구, 서울:일지사, (1983).
2. 김재홍, 한국현대시연구, 서울:일지사, (1986).
3. 김해성, 한국현대시인론, 서울:금강출판사, (1973).
4. 김현승, 김현승전집, 서울:시인사, (1985).
5. 박두진, 한국현대시론, 서울:일조각, (1980).
6. 박철석, 한국현대시인론, 서울:학문사, (1983).
7. 이운용, 지상에서 마지막 고독, 서울:문학세계사, (1984).
8. 최규창, 한국기독교시인론,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4).

A Study on Poet Kim Hyoun Sung

Lee, byoung-Moon

Dept. of Liberal Arts

Kwangju Health Junior College

>Abstract<

I researched the relation between the poet, Mr. Hyoun Sung Kim's life and his poetry in this theme.

This poet, who didn't live his life after writing the poetry, but wrote it during his life, had various poems which was different from others.

When he published his maiden work, there was an impressive poem which was deep written about nationalistic sentimentalism and yearning for nature world, and there were autumn poem and solitary poem deep related to his religious life.

He was a loving, solitary, and praying man. And he was a man of integrity from the essential problem of life to the devotional problem to God.

He wrote a religious poem earnestly in order to get over homely belief and religious doubt (skepticism).

So he is respected to the first Christian poet in Korea and his poems are loved.

When he wrote about 'a believing mind' as a poem, he could really say, "Let me pray," "Let me love," "Let me alone," and "Lord, be here with us," and "Lord of Nazareth, please be here with us."

His poetry was not a tasteful one isolated from life, but a vital and religious one which was adhered closely to life.

Recently, there was no vivid religious literature, no religious poet in our literature.

In this time there appeared a poet, Mr. Kim as a writer who cultivated a religious literature. What a proud it is!